

#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 큰 호응 속에 확대 운영



▲ 7월 23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구 계성고 학생들이 대구중재부 장익현 중재위원(변호사, 앞줄 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해가 갈수록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0년도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인턴십 프로그램은 초기 서울·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되다가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으로 확대됐다. 참여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턴십 프로그램은 40여 회에 걸쳐 약 1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교육과 심리실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가 유발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7월 23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구 계성고 학생들은 심리실 견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나중에 기자가 된다면 여기에 오지 않도록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김현정 학생은 “장래 희망이 기자라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됐다”며, “오늘 배운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으며, 특히 사생활 침해 사례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중재부 장익현 중재위원(변호사)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 이수증을 수여하면서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법원의 판결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의방안을 도출하여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경우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